

“더는 못버텨” 코로나에 폐업 속출

6~10월 광주 음식점 627곳 문 닫아... 단란주점·의원 등 업종 불문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확진자 발생이 연일 이어지면서 주요 상권의 유통인구가 감소하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휴업을 반복하던 자영업자들이 결국 사업을 포기한 채 폐업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올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뜩이나 힘겨운 상태에서 지역감염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광주지역 일반음식점은 627곳이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 지난해 같은 기간 554곳에 비해 13.2%가 증가한 것이다.

휴게음식점 역시 같은 기간 186곳에서 210곳으로 12.9% 폐업이 증가했고, 제과점영업도 18곳에서 22곳으로 22.2%가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이후 밀폐된 공간인 데다, 일명 도우미라 불리는 유희점객원과 밀접 접촉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희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자칫 업소를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라도 받을 경우 동선이 공개될 수 있다는 부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단란주점은 최근 5개월간 24곳이 문을 닫으면서 지난해 7월에 비해 무려 242.9%나 증가했고, 유희주점도 14곳에서 35곳으로 폐업한 가계가 150% 늘었다. 노래연습장도 전년 34곳에서 올해 48곳으로 41.2%가 증가했다.

PC방도 마찬가지로 PC방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폐업신고는 전년 47곳에서 올해 60곳으로 27.7% 증가했다. 폐업을 신고한 올해 코

로나19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PC방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손님 발길이 줄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희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업종은 지난 7월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영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밖에 대면접촉을 피할 수 없고, 감염위험이 높은 방문판매업은 지난해 12곳이 폐업한 반면, 올해는 무려 149곳이 폐업을 신고하면서 12배(1141.7%) 넘게 경증 뒤였다.

여기에 자칫 확진자가 방문할 수 있고, 일반 환자들도 많이 모이게 되는 병원도 방문을 꺼려하는 분

위기 탓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의 폐업도 지난해 12곳에서 26곳으로 10배(116.7%)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매출이 감소한 것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일부 업종들은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시간 제한 등 매출하락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광주 경제계 관계자는 “올초부터 시작된 불황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올해 입은 타격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단한 지갑에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하락

지난달 광주와 전남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71로 전월 대비 0.2% 내렸으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0.1% 올랐다.

매달 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물가 지수는 6~7월 마이너스 0.1%씩을 기록한 뒤 8~9월 0.6%와 0.5% 올랐다가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전남 물가지수는 105.69로 전월 대비 0.5% 내리고, 전년 같은 달 대비 0.6% 올랐다.

6월 0.1% 상승·반전된 뒤 4개월간 0.1~0.8%의 오름세를 보였다가 10~11월 마이너스 0.6%와 0.5%를 기록했다.

품목에 따라 농축수산물물은 광주와 전남이 전월

대비 7.7%와 7.6% 내렸다. 공업제품은 0.2%와 0.1% 상승하고, 서비스도 1.0%와 1.1% 올랐다.

지출 목적별로 광주지역은 전월과 비교해 통신(14.1%), 의류·신발(0.2%), 기타상품·서비스(0.2%)는 올랐으나 식료품·비주류 음료(-4.6%), 오락·문화(-1.3%), 가정용품·가사서비스(-0.8%) 등은 하락했다. 전남도 통신(14.2%), 기타상품·서비스(0.2%), 의류·신발(0.1%), 음식·숙박(0.1%) 등이 상승했고 식료품(-4.5%), 오락·문화(-1.9%), 교통(-0.7%), 주택·수도·전기·연료(-0.3%) 등은 내렸다. 통신료 지원 효과가 사라진 휴대 전화료는 광주·전남 모두 20% 넘게 상승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식 자제 등 소비 부진이 지속돼 저물기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글로벌 ‘증설’ 나서는 효성 스판텍스 세계1위 사수한다

조현준 회장, 브라질 공장 증설...생산 능력 2만2000t 달해

효성 조현준(사진) 회장이 터키에 이어 브라질 스판텍스 공장을 증설하며 세계 1위 스판텍스 초격차 확대에 나섰다.

효성티앤씨는 오는 2021년 12월까지 400억원(약 3600만 달러)을 투자해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 스판텍스 공장의 생산 규모를 1만t 증설하겠다고 2일 밝혔다.

증설이 완료되면 산타카타리나 공장의 생산능력은 기존의 2배 가량인 총 2만2000t으로 늘어난다.

이번 증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남미 의류시장에서 홈웨어, 애슬레저 등 편안한 의류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신축성있는 섬유인 스판텍스의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브라질 시장은 스판텍스 수입 관세가 18%에 이르는 등 타 지역에 비해 2배 이상의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기반이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또 브라질은 남미의 다른 12개국 가운데 10개국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 바다와 접한 면도 있어 인근지역 수출에도 유리하다.

이번 증설로 효성티앤씨는 미주지역에서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사와의 초격차를 확대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제



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지난 2011년 브라질에 생산기지를 건립한 후 미주지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현재 브라질 시장점유율 65%로 1위를 기록하고 있

다.

조현준 회장은 “코로나19 등 초유의 위기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변화의 시기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효성티앤씨는 지난달 600억원을 투자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터키 스판텍스 공장 증설을 결정했으며, 아시아 신흥국 시장을 위한 인도 생산기지 및 아시아 전체 시장을 위한 베트남 생산기지를 갖추는 등 대륙별 생산체제를 구축해 독자적인 글로벌 1위를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산업진흥회 국가직무표준·학습교재 현장 활용도 높아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개발한 국가직무표준(NCS)과 학습교재가 현장에서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진흥회는 2015년부터 광부품, LED, 레이저 등 광융합 분야 13개의 NCS와 학습교재를 개발해 산·학·연 등에 보급하고 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수준별 체계화한 것이다.

진흥회에서 개발한 NCS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205곳이 신규 직원 채용 후 재직자 교육이나 역량향상 교육을 비롯해 마이스터고, 광관련 대학 등에서 평균 85% 이상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포스트코로나 등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에 따라 기존 개발한 진흥회의 NCS 직무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트렌스버기술과 패킷광전달망시스템(POTN) 기술, 5G광통신부품 등 관련 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숙련자 배출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산업분야 업계 관계자는 “광융합산업은 중소기업이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직무표준이나 교재 등을 마련해 교육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업계에 필요한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NCS와 학습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순천시에 마스크 3만개 전달 송중욱(가운데) 광주은행장은 지난 1일 마스크 나누기인 '권분(權分) 운동'을 펼치고 있는 순천시에 마스크 3만개를 전달했다. 기부한 마스크는 순천 주요 관공지와 공공장소, 대중 교통시설 등에 비치된다. <광주은행 제공>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75.90 (+41.65)	- 금리(국고채 3년)	0.982 (-)
↑ 코스닥	899.34 (+8.05)	↓ 환율(USD)	1100.80 (-5.40)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품중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저자 이진